

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
글로 전하는 마음♡

짹-민 일보(一步)

2021년 3월 30일 화요일, 서울

글은 "밑줄 클릭"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.

"좋아요"와 "구독"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.

자스민, 한 걸음 나아감

구독을 원하시면 [여기](#)를 클릭하여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!

나의 하루를 가만히 안아 주는 너

자스민 소개 서



- 필명 : 자스민
- 인생관 : 행복하면 장땡
- 글 쓰는 철학 : "즐겁게 매일 쓰세"
- 출간 이력
 - 여태 3권(우측 참고)
- 활동 내역
 - [글병대] 글쓰기 수업 운영
 - 짹-민일보(一步) 대표
 - 매일 쓴다.
 - 그것은 에세이 일 때도
 - 소설 일 때도
 - 원고일 때도 있다.
 - 초고를 완성시켜
 - 투고도 한다.

삶을 가볍게 살아내고 싶다.

이른 새벽 자리에 앉아 글을 쓰고

[제대로 팔아 본 작가가 되겠어](#)



조기 은퇴를 꿈꾸며 출근을 하고

[놀고 먹는 게 제일 좋아](#)



일은 하지만 글을 꿈꾸다

[글 꾸는 직장인](#)



점심엔 운동을

[지방의 기쁨과 슬픔](#)



반복되는 삶이 고될 땐

[참](#)



여행을 가기도 하는 나는,
나의 하루를 안아 주고 있구나.

[넌아 나를 삶으로 만들지 마오](#)



글 병대

-글쓰기 훈련소-
소개 합니다!

쓰고 싶지만, 써야 하지만
마냥 막막한 당신에게

글쓰기란
무거움이 아니라
사실은 즐거움이라는
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

**"인생 터닝 포인트를
체험해 보세요."**

체험판(무료 4일) 신청하기
↓ 클릭 강추

<https://blog.naver.com/bestjasminever/222286769804>

자스민의 다양한 활동은
<https://brunch.co.kr/@supereunkyung>
기타 다양한 제안은
bestjasminever@naver.com

♥ 홍보 및 광고 ♥



"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삶, 자존"

자존은 키우고 가꾸는 거라는, 그녀의 자존 생존기를 녹였다.

**"32년째
엄마 사랑해"**



아직 딸의 삶이 전 부인 나는
"엄마가 보여준 사랑"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없었다는 것만은 압니다.

"메오를 부탁해"



메오를 부탁해

뇌수막염에 걸린 강아지를 기적처럼 살려 낸 가족 이야기,
"메오를 부탁해"

절찬 판매 중

짹-민 일보(자스민, 한 걸음 나아감)를 개간하였습니다. 무엇을 실을 지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. 다양한 소식을 실을 예정이라 나도 그 어디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거든요! 당신의 이야기가 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.